

人文論叢

80권 2호

2023년 5월

서평

www.kci.go.kr

2·8독립선언을 새롭게 보는 이정표

최우석*

[서평]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편(2023),
배영미·박준형 옮김,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 젊은이들의 만남과 꿈』, 삼인,
231쪽

1. 2019년의 100주년들

1919년 2월 8일 도쿄 간다구 니시오가와초 소재 재일본조선기독교청년회 회관 강당에 수백 명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p. 4, 이하 면수만 기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파리강화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는 첫 외침이었다. 그리고 3월 1일 서울을 위시하여 평양·진남포·원산·의주·선천·안주 등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100년 뒤, 바야흐로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다양한 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이 1년 내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찬가지로 100주년이 되었던 2·8독립선언은 많은 행사 중 하나로만 취급되었을 뿐 그다지 주목받지 못 하였다. 기념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었지만 100주년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성과가 제시되기보다는,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학술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 했고 대중적 큰

확산도 없었다.¹

2·8독립선언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서 ‘가장 거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도화선’, ‘불쏘시개’ 혹은 전사(前史)로 언급되어 왔다.² 2·8독립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도 3·1운동에 비해 한참 적었고 자료 발굴도 부진하여 새로운 연구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 양 취급받아 과거의 해석을 보강하고 반복하는 연구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2019년 2월 2일 일본 도쿄 소재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의 의의’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은 달랐다. 이 심포지엄 기획의 핵심은 지금까지 3.1독립선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해 왔던 2·8독립선언의 의의를 동아시아라는 공간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유학생들이 민족과 국경을 넘어 도쿄에서 만나 교류하며 당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 살았던 시대의 움직임 가능한 밝혀내고자 하였다.⁽⁴⁻⁵⁾ 이때의 발표·토론의 성과물은 곧 일본에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얼마 전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넘어서, 동아시아적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이를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 젊은이들의 만남과 꿈』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2019년 1월 18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2·8독립선언과 항일여성’과 1월 22일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2·8독립선언, 지나온 100년과 이어갈 100년’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2 金仁德(1999),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長久保宏人(1980), 「二・八獨立宣言への道: 1910年代後半の在日朝鮮人留學生運動」, 『福大史學』 29, 福島大學史學會; 長久保宏人(1981), 「二・八宣言から三・一獨立運動へ: ソウルを舞臺とした朝鮮人日本留學生の動きを中心に」, 『福大史學』 31, 福島大學史學會.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8독립선언의 독자적 논리를 발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도 축적되고 있다. 송지예(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오노 야스테루(2019), 「2·8독립선언의 전략성과 영향」, 한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휴머니스트.

2. 2·8독립선언 새로 보기

본서를 처음 펼쳐보았을 때, 조금은 구성이 낯설었다. 개별 저자 6명의 원고가 장을 구성하고 있고 종합토론이 수록되어 있었다. 여섯 원고가 심포지엄의 발표문 같아 보였다.

그런데 실은 1명의 기조강연, 3명의 발표, 2명의 토론을 각 장으로 구성하여 수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의 의의’ 심포지엄은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전망한 오노 야스테루(小野容照)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2·8독립선언의 주체였던 조선인 유학생이 2·8독립선언 이후 겪은 변화를 다룬 배영미의 발표, 타이완 유학생 관점에서 조선인 유학생들과의 연계를 논한 지취평(紀旭峰)의 발표, 2·8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이 기독교와 맺었던 관계를 재검토한 마쓰타니 모토카즈(松谷基和)의 발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사 관점에서 3·1운동과 5·4운동의 관계를 이야기한 오노데라 시로(小野寺史郎)와 해방후 제일조선인에게 2·8과 3·1이 가진 의미를 고민한 정영환의 토론이 있었다(8-10).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조강연과 발표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토론문과 종합토론문까지 함께 수록하였을 때도 발표문과의 위화감 없이 하나의 책으로 심포지엄을 직접 참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과거 서평자가 참여했던 공동연구서와는 다른 방식의 구성이었다.³ 한국 학계에서는 학술심포지엄에서 초고를 발표하고 토론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인 논문투고나 책 출간 시에는 상당부분 원고가 수정된다. 그러다 보면 책에 수록된 토론은 수정된 원고에 대해 맞지 않는 지적을 하는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본서에 수록된 두 토론문은 각각 독립적인 글이고 종합토론 역시 전체적인 역

— www.kci.go.kr

3 한국역사연구회 편(2019), 『3·1운동과 경기, 인천지역』, 경인문화사.

사상을 되짚어 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방향이어서 책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1장에서는 2·8독립선언 전후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선, 중국, 타이완의 유학생들이 결성했던 비밀결사 신아동맹당, 레닌과 월슨에 의해 제창된 ‘민족자결’, 이를 일본에 수입하여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던 요시노 사쿠조, 상하이에서 창당된 신한청년당 등의 전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흐름에 기반한 2·8독립선언이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독립 문제 논의를 요구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신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를 근거로 2·8독립선언을 한국근대사의 틀을 넘어 세계사적 시야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주요한 논점을 일본 사회에 대한 직접적 영향, 동아시아 여러 민족운동과의 상호관계, 기독교와의 관계로 정리하면서 학술심포지엄의 이후 발표들의 논의를 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2장의 배영미 원고는 2·8독립선언 이후 조선인 유학생을 둘러싼 상황과 현실 인식 변화를 다루었다. 조선인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 이후 점차적으로 우승열매의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해 민중을 발견하고 노동자와의 연대를 꾀하기 시작했고, 식민권력의 ‘내선융화’ 사업이라는 촘촘하고 엄중한 ‘회유와 압박의 그물’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과정을 살폈다.

3장에서 마쓰타니 모토카즈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에서의 기독교의 위치를 되묻는 것을 통해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관계성을 탐구하였다. 교회를 상대화시키는 역할로서의 YMCA를 강조하였고, 이광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최남선, 박희도 등 2·8과 3·1의 주도층들을 살피 독립운동가와 ‘교회’의 거리와 대립을 상세히 밝혀냈다.

4장에서 지쉬평은 1922년 발간된 『아세아공론』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세아공론』은 “하나의 기관지 안에 세 가지 언어가 혼재”한 잡지로서, 조선인, 중국인, 태만인 유학생들의 지적 교류의

장이자 횡적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 오노데라 시로는 근대 중국에서의 3·1운동, 기독교, 민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 조선, 대만에서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폈으며, 조선인 유학생 잡지 『아세아공론』의 표지 그림이 1910년대 미국사회당 심벌마크를 그대로 카피한 중국 잡지 『신청년』 제8권 제1호(1920년 9월)와 동일한 것을 밝혀 일종의 ‘사상연쇄’를 확인시켜 주었다.

6장에서 정영환은 해방 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2·8독립선언보다는 3.1운동에 대한 기억이 중심에 자리 잡았던 연유를 해명했다. 그리고 2·8독립선언을 전후해 존재했던 동아시아 연대의 전통이 일본공산당과의 연대, 1947년 재일범아시아민족회의 등의 경험으로 이어져 오면서 거친 역사적 연속과 단절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3. 2·8과 3·1 사이 다시 보기

이상 본서는 2·8독립선언의 동아시아 속 의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면서 기존에 언급되어 온 3·1운동과의 관계를 선긋기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다. 그런데 그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과 작은 의문들이 있고, 서평자가 3·1운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 다시금 3·1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2·8독립선언을 새로이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하나는 본서가 취한 바와 같이, 3·1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2·8독립선언 자체가 가진 의미 혹은 그것이 관계 맺고 있던 동아시아적 가치를 찾는 것이다. 본서는 이를 흥미롭고 수준 높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3·1운동과의 적절한 관계 맺기를 실패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2·8독립선언을 새로이 연구하기 위한 또 다

른 방법은 바로 3·1운동의 전사(前史)로서 2·8독립선언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기존의 ‘도화선’, ‘불쏘시개’가 아니라 3·1운동의 초기 준비과정을 추동하고 강제하고 규정한 것이 2·8독립선언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8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영향받은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들이 이후 국내의 3·1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끼친 영향이 컸음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밝혀낼 필요도 있다.⁴

본서에서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을 1대1로 비교하여 2·8독립선언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세 언어로 작성되었고, 『신한청년』 창간호(1920년 3월)에 중국어판도 게재되어 애초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읽힐 것을 의식하고 작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3·1운동의 독립선언서는 한국어판만 작성되었고 한반도 내에만 배포되었다고 본다(16).

하지만 이는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에 대한 온전한 비교가 아니다. 우선 3.1독립선언서는 단독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초기에 3·1운동을 기획했던 주체들은 아직 독립운동의 방법을 독립선언으로 할지 독립청원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양한 주체들을 섭외하고 협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 작성을 의뢰함과 동시에 「미국 윌슨에게 제출하는 청원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열국 대표들에게 제출하는 청원서」,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에게 제출하는 통고문」 등을 함께 요청하였다.

그 결과, 2·8독립선언서 하나에 담긴 내용이 여럿으로 나뉘어 각 대상에 맞추어 각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3·1독립선언서는 현순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전달되어 그곳에서 영문과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외국어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2·8독립선언만이 세계적으로 널리 읽힐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운동 준비 과정 중의 차이와 고민이 반영된

4 평자는 이같은 작업을 조금이나마 시도한 바 있다. 최우석(2014), 「제일유학생의 국내 3·1운동 참여: 「양주출 일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8독립선언도 하나의 문건에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그 내용이 명료하지 못 했다고 느꼈는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족대표소집청원서」라는 문건을 추가로 만들기도 하였다. 즉, 두 선언서만을 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를 평가하기보다는 이들 자매문서군들을 통합하여 살펴보고 그 의미와 활용방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서에서 언급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라는 접근은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한국사학계에서는 YMCA를 기독교계의 일반적 흐름과 일치시켜 보는데 이를 분리해 낸 관점은 신선하였다.

하지만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라는 명제는 여러 의문이 있다. 우선 하나는 이 논점을 3·1운동 전체 양상으로 확장할 시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3·1운동 전체 시위 중 기독교도가 주체인 시위가 17.4%로, 운동 주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일반 주도’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⁵ 기독교는 분명히 지방 확산에 주요한 매개체이자 만세시위를 가능케 한 물질 자원을 제공했다. 그 인적 네트워크로 독립선언서는 퍼져 나갔고 교회의 자산이었던 등사판 등을 활용하여 선언서와 태극기, 격문, 지하신문이 인쇄되었다.

그리고 민족대표 서명자 중에 전라도나 경상도는 없었고 이승훈의 영향력은 평안도 지역 교회 범위 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조선 전역 교회의 조직적 참여 증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89)은 일견 납득이 가면서도 세세하게 운동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반론의 여지가 있다. 우선,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3·1운동의 준비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처음 천도교와 기독교가 만남을 가진 것은 2월 15일을 전후한 시점이었고 3월 1일에 불과 10일 정도 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 그

5 염복규(2019), 「도시와 3·1운동: 양태, 네트워크, 리듬」, 『백년만의 귀환: 3·1운동 시위의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p. 68.

와중에 한용운이 유럽세력을 접촉하다가 실패한 일도 있었고, 이갑성이 군산 구암교회와 영명학교, 부산과 대구 계성학교 등지에서 선언서 서명자를 모집하려다가 시간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들도 존재한다.⁶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서명자로 참여에 실패한 것이지 그 지역들에 운동이 확산될 때 기독교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민족대표 서명자 범위나 몇몇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인식을 근거로 ‘조선 전역 교회의 조직적 참여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인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조선 전역’은 아닐 지라도 식민지 ‘조선의 상당수 지역’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본서에서 주목한 YMCA의 특징을 강조해서, 아예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계 인물들을 가칭 ‘YMCA 그룹’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묶어 낼 수 있고, 그것이 기존의 ‘비정치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다른 결을 드러내는 요소로 증명된다면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

4. 100주년 이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019년 2·8독립선언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제출되었다. 하나는 동아시아 속에서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본 본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자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 했던 2·8독립선언 관련 취조기록을 새롭게 발굴하여 그 내막을 보다 상세히 소개한 연구가 있었다.⁷

6 「李相召 訊問調書」, 1919. 6. 25., 국사편찬위원회 편(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金炳洙 訊問調書」, 1919. 6. 25., 국사편찬위원회 편(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 와세다대학 연구원은 2019년 10월 4일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개최된 ‘도쿄에서 함흥으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취조기록을 통해 본 2·8독립선언으로의 도정」이

특히 본서에서 동아시아 속 2·8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은 것은 기존 한국사 연구에서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탐구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기존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는 3·1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과 세계의 상호작용이나 동시성보다는 한국의 3·1운동이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선구적 위치를 점했고 다양한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⁸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주장일 뿐, 한국학계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자국사 중심주의’나 국수주의적인 해석에 머물렀다. 그러나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에서 다룬 2·8독립선언의 동아시아 속 역사적 의의는 그 당시 함께 교류했던 동아시아의 유학생들 서로 간의 관계성과 동시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 누구를 객체화시키기보다는 각자의 주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트랜스내셔널 역사(Transnational History)의 입장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재탐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혹은 조선사) 연구는 동양사(東洋史)의 영역에 있고, 2014년과 2017년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100주년의 공동연구 경험이 일본 학계 내에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⁹ 한국 학계에서도 기존의 자국사 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경계넘기’를 통한 새로운 일제 식민지 사회 인식과 한국독립운동사의 세계사적 자리매김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

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후 일본의 『제일조선인연구』에 투고하였다. 宮本正明(2020), 「取調記録を通じてたどる「二・八独立宣言」への道程」, 『在日朝鮮人史研究』 50,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8 한승훈(2018),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현실』 108, 한국역사연구회.

9 山室信一·岡田暁生·小関隆·藤原辰史 編(2014), 『現代の起点 第一次世界大戦』(全4卷), 岩波書店; 松戸清裕·浅岡善治·池田嘉郎·宇山智彦·中嶋毅·松井康浩 編(2017), 『ロシア革命とソ連の世紀』(全5卷), 岩波書店.

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한국 학계에 소개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현실이다.¹⁰ 그런 면에서 본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는 100주년 이후 2·8독립선언 연구를 새롭게 여는 연구서로서 향후 2·8독립선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교본으로 삼을 필독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金仁德(1999),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송지예(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염복규(2019), 「도시와 3·1운동: 양태, 네트워크, 리듬」, 『백년만의 귀환: 3·1운동 시위의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 오노 야스테루(2019), 「2·8독립선언의 전략성과 영향」, 한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편,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휴머니스트.
- 최우석(2014), 「재일유학생의 국내 3·1운동 참여: 「양주흙 일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 한국역사연구회 편(2019), 『3·1운동과 경기, 인천지역』, 경인문화사.
- 한승훈(2018),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현실』 108, 한국역사연구회.
- 小野容照(2013), 『朝鮮獨立運動と東アジア 1910-1925』, 思文閣出版.
- 小野容照(2021), 『韓国「建国」の起源を探る: 三・一獨立運動とナショナリズムの変遷』, 慶

10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의 저자로 참여한 오노 야스테루(小野容照)의 『朝鮮獨立運動と東アジア 1910-1925』(思文閣出版, 2013), 『韓国「建国」の起源を探る: 三・一獨立運動とナショナリズムの変遷』(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21)와 마쓰타니 모토카즈(松谷基和)의 『民族を超える教會: 植民地朝鮮におけるキリスト教とナショナリズム』(明石書店, 2020)와 같은 저서가 대표적이다.

應義塾大学出版会.

長久保宏人(1981), 「二·八宣言から三·一獨立運動へ: ソウルを舞臺とした朝鮮人日本留學生の動きを中心に」, 『福大史學』 31, 福島大學史學會.

長久保宏人(1980), 「二·八獨立宣言への道: 1910年代後半の在日朝鮮人留學生運動」, 『福大史學』 29, 福島大學史學會.

松谷基和(2020), 『民族を超える教會: 植民地朝鮮におけるキリスト教とナショナリズム』, 明石書店.

松戸清裕・浅岡善治・池田嘉郎・宇山智彦・中嶋毅・松井康浩 編(2017), 『ロシア革命とソ連の世紀』(全5巻), 岩波書店.

宮本正明(2020), 「取調記録を通じてたどる「二·八獨立宣言」への道程」, 『在日朝鮮人史研究』 50,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山室信一・岡田暁生・小関隆・藤原辰史 編(2014), 『現代の起点 第一次世界大戦』(全4巻), 岩波書店.

